



한국후지제록스, ‘2013 PS 월드 페어’ 개최 동급 최고 속도 신제품 누베라 157/314 소개 다양한 디지털 인쇄기 및 솔루션 한 자리에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우에노 야스아키, www.fujixerox.co.kr)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한국후지제록스 본사에서 ‘2013 PS(Production System) 월드 페어’ 행사를 개최하고 신제품 누베라 157와 누베라 314를 포함한 디지털 인쇄기 전 제품과 솔루션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며 디지털 인쇄에 대한 시장의 큰 관심을 드러냈다.

글 | 임남숙기자 sang@print.or.kr

2013 PS 월드 페어 행사에는 누베라 157/314, 700i DCP, 도큐컬러 1450 GA 등 엔트리급 기종부터 하이엔드 기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 인쇄기가 전시됐으며, 가변 데이터 소프트웨어 ‘엑스엠파이(XMPie)’, ‘익스프레스투프린트(Express to Print)’ 워크플로 등 디지털 인쇄기와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솔루션도 함께 전시됐다.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대표이사 사장은 환영 인사에서 “최근 정보와 콘텐츠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인쇄 사업 방식에 대해 주문, 인쇄, 물류 등의 워크플로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 새롭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PS 월드 페어를 통해 디지털 인쇄 기기와 솔루션, 워크플로

등 고객 여러분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행사는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후지제록스 Car Gek 아태지사 PS 마케팅 매니저가 최근 전세계 디지털 인쇄 시장 동향과 디지털 인쇄의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Car Gek 매니저는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피라(PIRA)가 201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세계 디지털 인쇄 시장 규모는 850억 달러로, A4로 환산하면 9530억 장의 출력량이다. 디지털 인쇄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어 2016년에는 14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A4 페이지로 환산하면 1조3000억 장에 달한다. 특히 디지털인쇄시장에서 흑백인쇄물이 차지하는



인사말을 하는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대표



국내서 첫 선을 보인 제록스 누베라314

비중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2026년까지 전체 흑백 디지털 인쇄의 50%가 책자인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쇄 주문 물량의 다품종 소량화가 확산되고 1:1 맞춤화, 인쇄물에 마케팅 적용 등의 요구가 높아져가고 있어 디지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빠른 출력 속도·향상된 생산성 누베라 314 시연

디지털 인쇄 시장 동향과 한국후지제록스의 제품 라인업을 주제로 한 발표 세션 이후에는 신제품 누베라 314의 시연이 진행됐다. 제품 시연은 누베라 314의 빠른 출력 속도와 생산성 향상을 드는 워크플로, 편의 기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누베라 314는 분당 314매의 빠른 출력 속도로 책자, 청구서, 브로슈어, 매뉴얼 등 대량의 인쇄 작업을 단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으며, 최대 1만7400매까지 용지 적재가 가능하다. 또한 완성된 인쇄물을 받는 ‘스태커(stacker)’를 3개까지 확장 설치할 수 있어 일정량의 인쇄물이 쌓이면 매번 정리가 필요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이 외에도, 기존에는 인쇄 도중 스태커

에서 인쇄물을 꺼내면 작업이 중지됐으나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은 스태커의 상태와 관계없이 연속으로 인쇄가 가능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량의 인쇄 작업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후지제록스 2013 PS 월드 페어에서는 누베라 157/314를 비롯해 컬러 800 프레스 (Color 800 Press), 700i DCP (700i Digital Color Press), 도큐컬러 1450 GA (DocuColor 1450 GA), D125/D110 프린터 (D125/D110 Printer), 컬러 550/560 프린터 (Color 550/560 Printer) 등이 소개됐다.

건우시스템 등 6개사 사인오프

신제품 시연에 이어 누베라 157/314 및 컬러 1000 프레스를 구입한 고객과의 사인오프(sign-off) 행사가 진행됐다. 사인오프에는 건우시스템(대표 이재득), 태산애드컴(대표 이강훈), 카피코(대표 정민), 선명씨앤피(대표 이상철), (주)포토토이닷컴(대표 조장환) 등 국내 6개 인쇄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PS 월드 페어 행사는 밸리 댄스 공연과 참가자 경품 추첨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한국후지제록스 PS마케팅팀 진은정 과장과 이귀선 대리가 누베라314를 소개하고 있다.



건우시스템 등 6개 고객사와 사인오프행사를 진행했다.